

칠보고, 제55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입 상 쾌거

✎ 정종인편집위원 | ⌚ 승인 2025.03.17 13:21

-단체전 3위, 개인전 역사급 이현우 2위 기록



[투데이안] 칠보고등학교(교장 최기석) 씨름부가 지난 12일 경북 문경에서 열린 제55회 회장기 전국 장사씨름대회에서 고등부 단체전 3위, 개인전 역사급(100kg이하) 2위를 차지했다.

개인전 역사급에 출전한 3학년 이현우 선수는 결승전에서 대구능인고의 전명건 선수와 맞붙어 1:1 초박빙 경쟁에서 1:2로 패하며 아쉽게 2위를 기록했다.

칠보고등학교 씨름부는 2023년 3월 창단돼 '칠보초-칠보중-칠보고'로 이어지는 씨름 명문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.

단체전 3위를 이끌어낸 주장 정민수 선수는 "3학년 첫 대회에서 4강 진출이라는 기쁨도 잠시, 긴장을 많이 해서 발목에 부상을 입어 팀에 힘을 보태지 못해 아쉬웠다"며 "다음 경기에서는 체력관리에 더욱 신경써서 팀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는 각오를 밝혔다.

조명신 감독은 "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열심히 훈련에 임해왔으며, 이번 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열릴 대회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"고 말했다.

한편 칠보고등학교는 호남 유일의 전기(내선, 외선)전공 특성화공업고등학교로 4차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전기기술인 육성을 목표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.



정종인편집위원 bhaum2730@naver.com

저작권자 ©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